

‘부진’에 ‘지진’ 덮친 광양~日 카훼리

광양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된 광양~일본간 카훼리 운항 2개월이 됐으나 부진을 면치 못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여파로 광양에서 시모노세키로 13일 출발 예정이던 190여명중 13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지난해 4월 전남도, 광양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광양훼리(주)와 광양~일본간 항로개설에 대한 MOU 체결 이후 전남도와 광양시, 한국컨부두공단 등이 운영에 대한 일부 예산을 보조한다는 명분속에 광양훼리가 출범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남도나 광양시는 정확한 보조액수도 정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집행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훼리는 출범후 지난해 8월 ‘광양비치호’(1만6000t 규모) 카훼리 선박 구입, 10월 국토부로부터 운송면허를 취득한 뒤 지난 1월말 광양~일

운항 2개월...승객 정원 3분의2 못채워

홍보 부족속 지진여파 예약 취소 사태

본간 카훼리인 광양비치호가 공식 운항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획 초기부터 선사결정까지 진통 끝에 카훼리가 운항에 들어갔으나 ▲일본 현지 홍보부족 ▲시모노세키시와 관광업계의 광망적인 자세 ▲국제 유류값 폭등 ▲호남 관광업체의 참여 저조 등이 광양훼리의 초기 관광객 저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부진과 이들의 취향에 맞는 대형 쇼펜터 전무, 관광객을 매료시킬 만한 관광코스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광양훼리가 부산 등 대형 업체들에 비해 후발주자란 약점때문에 일본 모지항과 시모노세키항 등 터미널 2곳을 이용

하다 보니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기획단계시 전남에서 유일하게 일본간 카훼리를 운항해 호남과 충청권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수출입이 용이하고, 물류비 절감 등 이점 차원에서 지자체나 기업의 기대가 컸으나 아직도 광양시와 컨부두공단 등이 그나마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23일 운항을 시작한 ‘광양비치호’ 승객정원은 609명이지만 11일 현재 총 이용객은 9000여명으로 1항차 평균 220여명에 불과해 관광객과 물동량 유치가 시급하다.

광양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전남도나 각 지자체의 협조는 물론 전북과 충청권 기관 및 기업들까지 상대

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수출입이 용이한 장점에 대한 홍보부재가 아쉽다”면서 “그나마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환적화물이 늘고 있고, 향후 신선도가 요구되는 농수산물 수출물동량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모노세키 시청 황만국 후쿠카라 치카라 과장은 “일본인들은 한국 특유의 농사와 민박,음식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 기자단, 관광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홍보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시모노세키시 또한 일본내 각 기관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일본 관광회사와 한국 관광업체가 다양한 코스를 개발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비치호’는 매주 목·일요일에 시모노세키, 화요일에 모지항으로 출항하며, 시모노세키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모지항은 수요일에 광양으로 출항하고 있다. 예약문의(1577-8696)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훈련도 실전처럼 긴박하게...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지난 10일 백암사 일원에서 장성군청,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산불발생시 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제공)

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 13개 농협 ‘인재 유치 전쟁’

3년 주기 전무·직원 교류인사

조합장들 유능직원 유치 움직임 활발

나주 관내 13개 농협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한 전무 및 직원들의 교류인사를 앞두고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총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13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13개 농협조합장은 직원들의 업무향상 등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3년 주기로 전무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조합장들이 최근 2차례의 사전 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인 인사교류안을 협의하고 14일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 최종적인 교류안을 마련해 3월 중으로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2차례 간담회에서 마련된

기본안은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남평농협의 전무와 정년이 불과 1년 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마한농협과 다시농협 전무 등은 이번 인사교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승진한 직원의 경우 무조건 이번 인사교류에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인사교류안에 동참하지 않은 농협은 향후 인사교류에 배제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번 나주 관내 조합장들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들 사이에 추진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서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K 조합장은 “그동안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조합장들 사이에 유능한 직원을 서로 영입하려는 눈치보기가 심각한 상태다”며 “이 때문에 자칫 최종적인 인사교류안을 놓고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A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B전무의 경우 관내 조합장들이 서로 영입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반면 C농협 D전무는 연봉은 높은 반면 업무추진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장들이 서로 영입을 기피,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관계자는 “관내 조합장들이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최종적인 인사교류안 합의의 물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장들이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만큼 인사원칙 마련에 진통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철기자 srchoi@

고교생에 장학금 2천만원

보성 아산병원 장학증서 수여

아산사회복지재단 보성 아산병원(병원장 김중철)은 최근 2011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관내 8개 고교 학생 16명에게 장학금 2000여만원

을 전달했다. 보성 아산병원은 고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는 물론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역민들을 위해 무료진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재단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장학금 수혜인원을 증원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여수박람회 성공 위해 땀시다”

市, 4대 시민운동 결의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엑스포 4대 시민운동(청결·친절·질서·봉사) 결의대회가 김충석 여수시장, 김대성 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장과 각 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지난 10일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여수시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준비 경과보고, 엑스포 4대 시민운동 결의문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하멜동대·이순신 광장·오동도·여수경원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가지 청결활동과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벌였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변산 바람꽃’ 여수 서식 추가 발견

한국 특산식물인 ‘변산 바람꽃 군락지’가 여수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5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인 여수 향일암 일원에서 한국 특산식물인 변산바람꽃 군락지가 처음 발견된 후 최근 이곳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 군락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3월 첫 발견 당시 군락지 면적은 360㎡에 300개체였고, 이번 추가 발견된 군락지 크기는 300㎡에



400~500개체로 조사됐다. 강낙성 소장은 “군락지 인위적 훼손을 막기 위해 학술적 조사와 더불어 순찰을 강화해 서식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영암 사료공장 ‘주민동의서’ 위조 했다

군청에 제출...주민들 항의방문 등 반발

영암군 미암면 신항리 한정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어류용 사료공장 <광주일보 3월 11일 10면>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영암 한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위조된 주민동의서가 군청 해당과

에 인·허가용으로 제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3번이나 군청을 방문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수가 외부행사를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누가 위조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고, 확인되면 당장

인·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암군 미암면 신항리 한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인 삼호읍 서정리 산 64-1번지 6280㎡(1900평)에 들어설 예정인 어류용 사료공장에 대해 악취와 환경과외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 세 일 글

“도서지역 맞춤형 교육 컨설팅”

장진 숙 원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의성·인성교육이 학력향상과 균형있게 이뤄지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장진숙(60) 원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행정 지원을 더해 원도 도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장 교육장은 광주 여고와 조선대 가정교육과, 호남

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2년 현산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장학교육청 교육과장, 전남도 자연학습장 관리소장(연구관), 육과중 교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남편 오호일씨와 사이에 2남1녀가 있으며 취미는 독서.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식당용 중고품

업소용품 주방용품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의료개방과 통합의학 시대를 준비하는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안내

기본과정(4개월)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중급과정(6개월)
주요과목: 침구치료학, 진단과치료, 자연식품과한방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연구과정(3개월~1년, 과목별)
주요과목: 사업오행, 동시기혈, 활법운동처방, 명리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3월 25일(금) 14시 4월 9일(토) 14시
개강일정 광주21기 4월 1일(금) 14시 광주22기 4월 16일(토) 14시

▶ 광주분원 위치: 화정역 4번출구 200m 인근, 추선회관 뒷편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